

## ■ 연구원 소식

### ○ 스리랑카 한달 살이 이야기( ~ 3월 25일 접수 마감)



춘래불사춘이라고 움추려만 있기에는 너무 겁쟁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 마지막 주에는 꼭 이 상황이 진정될 것이란 믿음과 바람으로 우리 연구원 유영봉 회원께서 지난 1월~2월 한 달동안 스리랑카와 몰디브에서 만난 이야기를 2회에 걸쳐 회원 및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자합니다. 혹여 상황이 진정되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면 연기될 수 있지만 어서 끝내고 봄을 만끽 하자는 바람을 담아 날짜를 정했습니다. 많은 분을 모시고 싶지만 장소 관계상 스물다섯분 내외가 최대치일 것 같습니다. 접수는 3월 25일까지입니다.

**제 목 : “스리랑카와 몰디브로 떠나는 여행”**  
**강 사 : 유영봉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일 시 : 2020년 03월 28일(토) 16시 / 04월 18일(토) 16시**  
**대 상 : 회원 및 시민**

---아래는 유영봉 교수께서 여러분을 모시는 초대 글입니다---

폴론나루워·스리파더·아누라더뿌러·캔디·하푸탈레·누와라엘리여·자프너..... 어딘지 아시나요? 스리랑카의 여러 도시들 이름인데, 보다시피 낯설고 외우기가 힘들지요. 인도의 눈물. 홍차의 나라. 카레 향이 넘치는 나라. 스리랑카는 철도가 발달한 나라라서, 한 달 동안 주로 기차를 타고 두루 돌아다녔지요.

스리랑카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유럽에서 넘어온 아리안 족의 한 계통인 썩할러 족이 74%로 가장 많고, 타밀 족이 18% 정도지요. 타밀 족은 본래 남인도 출신의 부족인데, 그 옛날부터 썩할러 족은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군대가 없었으니, 그들은 타밀 족을 용병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 밖의 소수 민족은 인도에서 온 7%의 무어 족 외에 말레이 족과 네덜란드의 후예인 버거 족이다. 그들은 실론 섬에 수많은 문화유산을 남겼지요. 자, 그들을 만나러 출발해볼까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한 인천행 공항버스가 막힘없었다. 버스는 이따금 평탄한 노면 위를 일정한 속도로 흔들림 없이 달렸다. 대기와의 마찰음과 규칙적인 엔진 소리가 서로 공명을 일으키는가? 교오오오..... 하는 소리와 함께 잠깐 잠깐 진공 상태가 이어졌다. 우주의 미아가 블랙홀을 통해 지구로 불시착하는 순간인가 싶었다. 찬란한 불빛들이 지구의 밤을 수놓았다. 이번에는 스리랑카와 몰디브다.”

## 워싱턴 D.C의 링컨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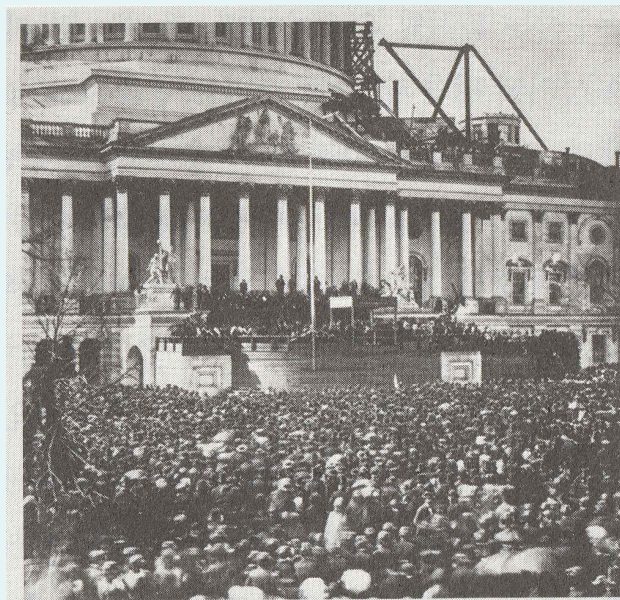
링컨은 1861년 3월 4일 국회의사당 건물 앞에 마련된 연단에서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대통령에 취임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링컨이 워싱턴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하였고 취임식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과연 링컨이 취임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내기를 걸 정도로 회의적인 분위기도 만만찮았다.

사실 스프링필드에서 워싱턴으로 출발하기 직전 링컨에게 암살 음모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다. 워싱턴으로 가는 도중 볼티모어에서 거사를 벌인다는 것이었다. 이를 분석해 본 링컨은 그 정보가 매우 신빙성 있는 것이라 판단하였고, 볼티모어로 가는 특별 기차를 타지 않고 일반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하였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측근 두 사람만이 비밀리에 영접을 나왔고 누구도 몰래 이들과 함께 호텔로 향했다. 그리고 취임식 날이 되었다. 링컨은 그가 묵은 호텔로 온 15대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과 함께 마차를 타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가 연도에 들어서서 대통령을 보호했다. 이는 암살 음모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다.

이상한 소문으로 인해 안정된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의사당 앞마당을 가득 메웠고 단상 왼편에 외교관들 그리고 오른편에는 상원의원들이 착석하고 있었다. 물론 영부인과 세 아들이 영광스런 광경 속에서 상기된 모습으로 링컨을 보고 있었다.

드디어 아브라함 링컨은 16대 대통령 취임선서를 위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링컨은 단상에 서서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왜냐면 그의 지팡이와 모자 때문이었다. 지팡이는 난간에 세워 놓았지만 새로 산 검정색 굴뚝모자는 마땅히 놓을 곳을 차지 못하였고 그렇다고 바닥에 놓기는 싫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 그 순간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이를 감지하고 링컨에게 다가가 지팡이와 모자를 받아 들었다. 그 사람은 다른 아닌 직전까지 링컨의 정적(政敵)이었던 더글라스 였다. 그는 상원으로서 얼마 전까지 만하더라도 링컨을 능가하는 정치적 영향력과 세련미를 갖춘 정치가였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어 접전을 벌이기도 하였던 사이이다. 그런 그가 자진해서 링컨의 지팡이와 모자를 행사가 끝날 때까지 들고 있었다. 전임 뷰캐넌 대통령이 그의 옆에 있는 가운데, 잠시 후 선서식이 거행 되었다.



링컨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해 국회의사당에 모인 사람들



스미소니언 박물관

링컨이 당선 되자 맨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연방에서 탈퇴하였다. 그리고 1861년 2월 1일에 다시 남부의 6개주가 연방에서 탈퇴하고 그들만의 '남부연방'을 결성하는 예비 헌법을 채택 하였다. 이는 링컨의 대통령 취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사태였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링컨은 취임을 하게 되었다. 링컨의 연설문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곧 들어설 행정부는 한 지역의 재산 · 평화 · 안전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이유로든 적법하게 요구될 경우 한 지역에도 기꺼이 주는 것처럼, 모든 주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해줄 수 있는 모든 보호를 기꺼이 수행할 것입니다.

-중략-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볼 때 연방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저는 헌법 자체가 분명히 명령하는 데 따라 연방의 여러 법률이 모든 주에서 충실히 실행 되도록 돌볼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열정으로 팽팽히 잡아당겨진다 하더라도, 우리 애정의 끈이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전쟁터와 애국자의 무덤부터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이 드넓은 나라의 온 길 바닥에 뻗어 있는 신비한 기억의 울림이 우리 본성 속의 천사들에 의해 다시 어루만져지는 날, 연방의 합창은 또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며, 7개주가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임을 강조하였고 합중국으로 복귀해줄 것을 호소하며 취임사를 끝마쳤다.

이로써 대통령의 임기를 국회의사당에서 시작하였다. 그 국회 의사당이 지금도 웅장하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위풍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사당 앞으로 수km에 걸친 긴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자주 개최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스미소니언박물관, 한국전쟁기념 공원 등 볼거리가 많다.



대통령 기념관에 있는 링컨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 일직선(바로 보이는 것 같으나 한참을 걸어가야 한다.)으로 링컨 대통령 기념관이 있으며, 그 안에 링컨 대통령이 근엄하지만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 ■ 천년 암자에 오르다

### 백장선사를 기리는 <수청산 백장암> 첫 번째 이야기 “백장기를 목전에 두고”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백장선원** | 백장선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선원이다. 선기가 매서운 선원 앞에 빗장을 지른 무문관이 결연하게 자리를 잡았다.

설날이 지나 곧장 입춘이다. 날씨는 아직 쌀쌀한데, 바람이 어느새 부드러워졌다. 지난 가을에 바람의 칼날이 초목을 잠재웠다면, 오늘은 다시 생명의 숨결로 돌아왔다. 보내는 것도, 맞는 것도 바람의 역할이요, 사명이다. 모든 게 바람의 짓이다.

산야에 안개가 희뵈한데, 물소리는 커졌다. 산들이 깊은 숨을 천천히 내쉬기 시작한 것이다. 겨우내 추위에 웅크리고 있느라 뻣뻣해진 몸통을 펴기 위해 산들은 먼저 두텁게 쌓인 눈과 얼어붙은 물길부터 풀어낸다. 막혔던 혈관을 녹여 가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팔다리를 편다.

원활한 피 돌기를 기약하는 굴신屈伸으로 산맥의 뼈마디에 물방울이 돈다.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은 진동 없는 파장으로 퍼져 나가 수목과 풀씨들을 일깨운다. 솜털 같은 잔뿌리를 촉수처럼 내밀게 하고 깨알 같은 씨앗들을 움트게 만든다.

뿌연 하늘 아래로 물소리가 들려오니 봄은 이렇게 무심한 표정과 단순한 음향으로 다가온다. 작년의 봄과 다르지 않고 내년의 봄과 다를 바 없는 순환의 한 장면이다. 차라리 느긋하고 담담한 표정이다. 자연의 위대함은 이토록 허전한 단순성에 있으니, 거대한 순환의 고리는 참으로 소박의 연속에서 기인한다. 복잡과 번덕은 자연의 순환을 일구지 못한다. 오히려 무차별하게 파괴하고 말 것이니, 굳이 빙하기를 예로 들지 않아도 아는 일이다.

멀리서 산줄기들의 긴 하품이 바라보인다. 나무들은 녹녹한 날숨을 뱉어 낸다. 영겁으로 흐르는 시간의 입자들이 산천을 채우고 배릿한 봄 냄새가 허공에 번진다. 세상의 목숨붙이들은 몸 안에 온기를 저장하느라 바빠졌다.

오늘의 봄 역시 단순 명료한 순환의 고리 속에서 싹튼다. 늘어진 나뭇가지마다 추운 겨울을 힘들게 버틴 잎눈과 꽃눈이 비늘잎으로 달렸다. 이들은 이제 올 봄을 찬란하게 피워내면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오늘의 봄을 가장 '오늘의 봄'답게 꾸미는 '오늘의 바람'이 불어온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종사禪宗史에도 수많은 바람들이 스쳐갔다. 선종을 종지宗旨로 삼는 바람들이 그때그때 한 시절을 풍미했으니, 이 바람들은 제각각 독자적인 선풍禪風을 일으키며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 중에서 잊혀지지 않을 큰 바람 하나는 당나라 때의 회해선사(懷海禪師, 720~814)다. 노년에 주석한 장소가 백장산이었으므로, 스님을 흔히 백장선사百丈禪師라고도 부른다.

백장선사는 당시 저마다의 계율과 방법으로 뿔뿔이 흩어져 수행하던 스님들을 불러 모아 공동생활을 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찰을 세웠으니 그 유서 깊은 장소가 백장산이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백장청규百丈淸規』를 제정했다. 선문의 직책에서부터 식사에 이르기까지 종단에서 지켜야 할 계율을 맨 처음 만든 것이다. 사원은 물론 법당과 승당 그리고 방장의 제도를 먼저 정한 다음에 다른 승려들에게 동서東序, 요원寮元, 당주堂主, 화주化主 등의 소임을 맡겼다. 자신은 이따금 법당에 나와 상당법문을 베풀었다.

2권의 책으로 이루어진『백장청규』는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 선종에서 지키는 법규의 뼈대와 핵심이 된 중요한 저작으로 칭해진다. 참고로, 백장선사와 관련한 화두話頭로는 '백장야암자百丈野鴨子'와 '백장야호百丈野狐'가 전해 온다.

백장선사는 청빈한 삶의 표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가 남긴“일일부작一日不作일일불식一日不食”이란 말은 오늘날까지 널리 쓰인다. 이말은“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라고 풀어진다.

백장선사는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밭에 나가 일을 했다. 그래서 이를 안쓰럽게 여긴 제자들이 어느 날 스님의 농기구를 모두 감추었다. 그러자 스님은 밭에 입을 대지 않는 것이었다. 제자들이 연유를 묻자 스님은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란 말로 대답하였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경복하고 말았다.

선종사에 남긴 백장선사의 업적은 이제 '백장기百丈忌'라는 의식으로 기려진다. 스님은 1월 7일에 입적하였으니, 선원을 창립하고 청규를 제정한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받고자 절마다 이날을 택해 특별하게 법회를 여는 것이다. 문득 날짜를 따져 보니'백장기'가 사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주는 <수청산 백장암> 두 번째 이야기 “실상사를 지키는 장승들”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